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백총기 수석연구위원(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kmj9612@bnkfg.com)

최근 5년간 동남권 수출은 연평균 7.6%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수출권역의 위상을 수도권으로 넘겨주게 되었다. 울산은 2011년 국내 최대 수출지역이었으나 2016년 3위까지 밀려났고 경남은 3위에서 5위, 부산은 9위에서 11위로 수출순위가 하락하였다.

2015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밀어내고 동남권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동남권의 대(對)미국 수출비중은 2011년 7.9%에서 2016년 14.7%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반면 대(對)중국 수출비중은 15.3%에서 11.9%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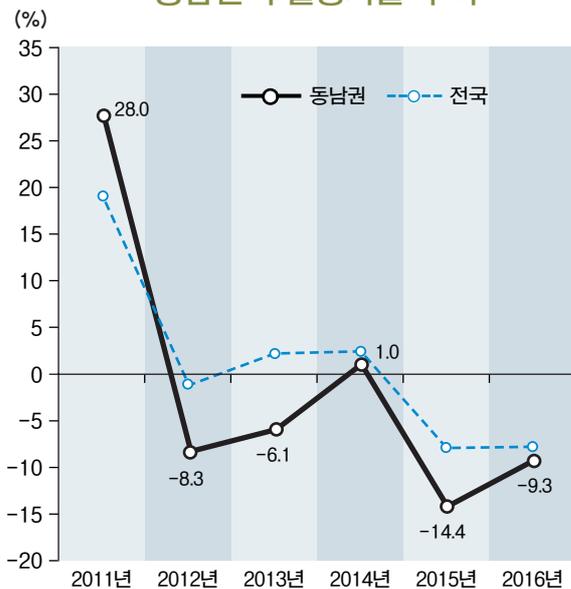
2017년 동남권 수출은 미국 및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주력 수출품목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중후장대형 산업제품이라는 점에서 수출 개선 폭은 다소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저성장기에 대응하고 균형 잡힌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수출대상국 다변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동남권 수출, 최근 5년간 연평균 7.6% 감소

동남권 수출은 최근 5년간(2012~16년) 연평균 7.6% 감소하였으며 2014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¹⁾. 특히 2015년 및 2016년은 지역수출 통계가 발표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동남권과 전국의 수출이 동시에 2년 연속 감소하는 극심한 부진을 경험했다.

동남권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2.8%에서 2016년 25.2%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수도권은 수출비중이 30.7%에서 37.8%로 높아지면서 동남권을 밀어내고 국내 최대의 수출권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동남권 수출증가율 추이



주 : 전년대비증가율 (2016년은 1~10월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내수출중 권역별 비중¹⁾²⁾

순위	2011년		2016년	
	권역명	(비중)	권역명	(비중)
1위	동남권	(32.8)	수도권	(37.8)
2위	수도권	(30.7)	동남권	(25.2)
3위	충청권	(13.7)	충청권	(17.5)
4위	호남권	(11.9)	호남권	(10.0)
5위	대경권	(10.5)	대경권	(9.2)

주 : 1) 2016년은 1~10월중
 2) ()내는 전국 총수출액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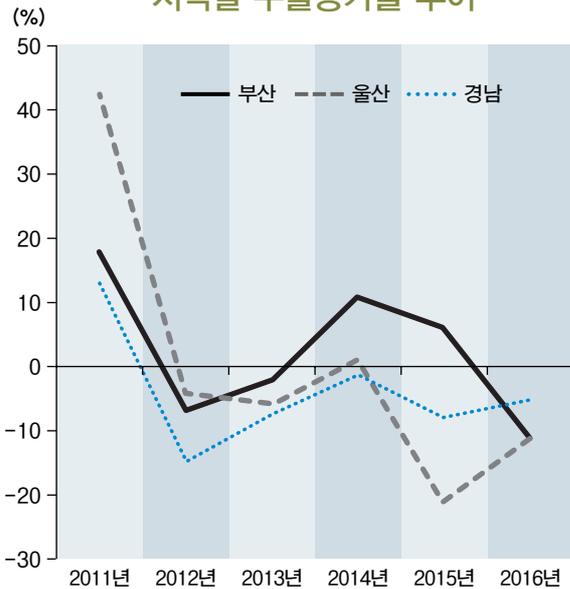
1) 2016년은 1~10월중 수출액(1,021억달러)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다. 2012~16년중 전국 수출은 연평균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8.9%), 경남(-7.3%) 및 부산(-1.0%)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 및 경남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²⁾.

울산의 경우 2011년에는 국내 16개시도중 최대 수출지역(국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이었으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6년에는 3위(비중 13.1%)까지 밀려났다. 같은기간 경남은 3위에서 5위, 부산은 9위에서 11위로 수출순위가 하락하였다.

울산이 밀려나면서 경기도가 국내 1위 수출지역으로 부상하였고 충남이 2위로 올라섰다. 경기도는 2012~16년중 수출이 연평균 3.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3.8%), 평판디스플레이(8.6%), 기구부품(8.1%), 플라스틱제품(5.8%) 등의 수출 호조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³⁾.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주 : 전년대비증가율 (2016년은 1~10월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수출순위 변화

순위	2011년	2016년
울산	1위 (18.3)	→ 3위 (13.1)
경남	3위 (11.9)	→ 5위 (9.2)
부산	9위 (2.6)	→ 11위 (2.8)

주 : ()내는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14년 부가가치 기준 지역별 제조업 비중은 울산 65.7%, 경남 44.7%, 부산 19.6%이다.

3) 경기도의 주력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기구부품,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등이다 (2016년 수출순위順).

3대 주력수출품목(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모두 마이너스 성장

선박해양구조물(부품포함),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은 동남권의 상위 5대 수출품목에 매년 포함되고 있다. 수출 1위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은 최근 조선해양산업 경기가 크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수출중 2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및 석유제품은 동남권의 2~3위권 수출품목이며 전체 수출에서 10~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4위 수출품목으로서 2011년 3%대에서 2016년 5%대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동남권 3대 주력 수출품목(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해양구조물은 연평균 11.8%, 석유제품은 16.7%, 자동차는 3.2%의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⁴⁾.

동남권 상위 5대 수출품목 변화

품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선박해양 구조물 (28.4)	선박해양 구조물 (20.5)	선박해양 구조물 (21.6)	선박해양 구조물 (23.1)	선박해양 구조물 (26.2)	선박해양 구조물 (23.1)
2	석유제품 (17.1)	석유제품 (20.1)	석유제품 (19.0)	석유제품 (19.0)	자동차 (14.5)	자동차 (13.4)
3	자동차 (10.6)	자동차 (11.7)	자동차 (12.2)	자동차 (12.4)	석유제품 (11.6)	석유제품 (10.2)
4	자동차부품 (3.4)	자동차부품 (4.1)	자동차부품 (4.9)	자동차부품 (4.8)	자동차부품 (5.6)	자동차부품 (5.4)
5	건설광산 기계 (2.8)	건설광산 기계 (2.8)	합성수지 (2.9)	합성수지 (2.7)	합성수지 (2.3)	레일 및 철구조물 (2.6)

주 : MTI 3단위 기준, ()내는 총수출액 대비 품목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동남권 3대 주력 수출품목은 동남권 전체수출중 약 52%(2012~16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동남권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중국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동남권 수출의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15년 이후 미국이 동남권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동남권의 대(對)미국 수출비중은 2011년 7.9%에서 2016년 14.7%로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반면 대(對)중국 수출비중은 15.3%에서 11.9%로 하락하였다.

한편 전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동남권과 달리 같은기간 24.2%에서 25.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대(對)중국 주력 수출품목의 호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동남권 수출대상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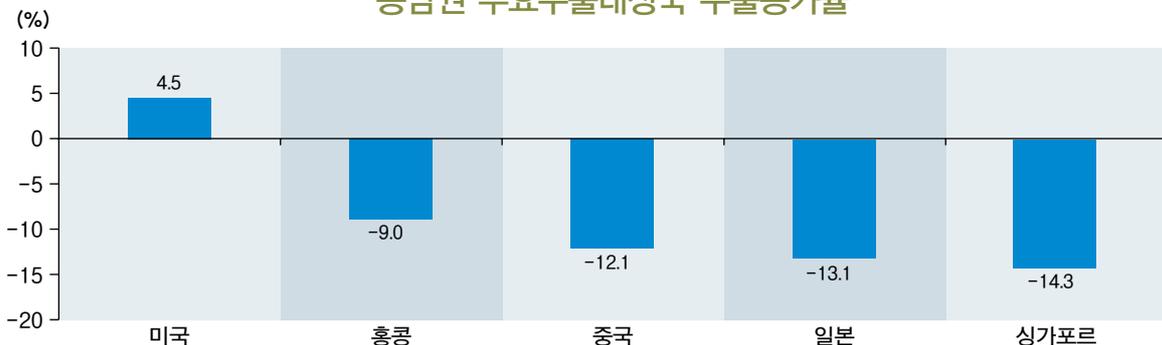
순 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중국 (15.3)	중국 (14.6)	중국 (15.2)	중국 (13.0)	미국 (14.3)	미국 (14.7)
2	미국 (7.9)	미국 (11.1)	미국 (11.3)	미국 (12.4)	중국 (11.3)	중국 (11.9)
3	일본 (6.9)	일본 (7.2)	일본 (6.9)	싱가포르 (7.3)	일본 (5.0)	일본 (5.1)
4	싱가포르 (5.4)	싱가포르 (6.5)	싱가포르 (5.7)	일본 (6.2)	싱가포르 (4.4)	싱가포르 (3.7)
5	인도네시아 (4.1)	인도네시아 (4.3)	인도네시아 (3.3)	호주 (3.3)	호주 (4.1)	홍콩 (3.5)

주 : 1) 2012~16년중 연평균 증가율(MTI 3단위 기준)

2) ()내는 총수출액 대비 국가별 수출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주요수출대상국 수출증가율



주 : 2012~16년중 연평균 증가율(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對)미국 수출 호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견인

최근 5년간 동남권의 대(對)미국 수출은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이는 동남권의 대(對)미국 수출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⁵⁾을 차지하는 자동차(12.1%) 및 자동차부품(8.7%) 수출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동남권의 대(對)미국 주력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섬유·화학기계, 선박해양구조물 등이다. 자동차는 수출 1위품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3~5위권 수출품목이었던 선박해양구조물은 금년들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편 항공기 날개를 중심으로 기계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항공기(부품포함)가 5위권에 진입하였다.

동남권의 對미국 상위 5대 수출품목 변화

(%)

품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자동차 (29.1)	자동차 (29.3)	자동차 (31.1)	자동차 (32.6)	자동차 (41.6)	자동차 (41.2)
2	석유제품 (11.9)	석유제품 (10.7)	석유제품 (14.2)	석유제품 (11.4)	석유제품 (8.4)	자동차부품 (7.8)
3	자동차부품 (6.4)	선박해양 구조물 (10.5)	자동차부품 (6.7)	선박해양 구조물 (6.7)	자동차부품 (6.6)	석유제품 (6.8)
4	섬유 및 화학기계 (5.6)	자동차부품 (6.1)	섬유 및 화학기계 (4.8)	자동차부품 (6.2)	선박해양 구조물 (3.4)	섬유 및 화학기계 (3.6)
5	선박해양 구조물 (5.2)	섬유 및 화학기계 (4.6)	선박해양 구조물 (3.9)	철강관 및 철강선 (3.7)	항공기 및 부품 (3.4)	항공기 및 부품 (3.4)

주 : MTI 3단위 기준, ()내는 총수출액 대비 품목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동남권의 대(對)미국 수출중 49%의 비중을 차지(2016년 기준)하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 감소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부진에 주로 기인

최근 5년간 동남권의 대(對)중국 수출은 연평균 12.1% 감소하였다. 이는 석유제품(-21.0%), 석유화학중간원료(-6.0%), 합성수지(-8.4%) 및 기초유분(-6.5%)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동남권의 대(對)중국 주력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석유화학합성원료, 석유화학중간원료, 선박해양구조물, 합성수지 등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현대차 중국 법인 판매호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2014년 이후 1~2위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대(對)중국 수출품목은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남권의 對중국 상위 5대 수출품목 변화

(%)

품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석유제품 (19.9)	석유제품 (19.7)	석유제품 (15.2)	석유제품 (15.9)	자동차부품 (11.7)	석유제품 (11.7)
2	석유화학 합성원료 (10.5)	석유화학 합성원료 (9.6)	석유화학 합성원료 (7.6)	자동차부품 (9.4)	석유제품 (9.5)	자동차부품 (9.9)
3	선박해양 구조물 (6.4)	석유화학 중간원료 (7.6)	석유화학 중간원료 (7.5)	석유화학 중간원료 (8.5)	선박해양 구조물 (7.6)	석유화학 중간원료 (7.9)
4	합성수지 (6.0)	합성수지 (6.4)	선박해양 구조물 (7.4)	합성수지 (7.6)	합성수지 (7.0)	합성수지 (7.4)
5	건설광산 기계 (5.7)	동제품 (5.5)	합성수지 (7.3)	선박해양 구조물 (5.0)	동제품 (6.0)	기초유분 (5.1)

주 : MTI 3단위 기준, ()내는 총수출액 대비 품목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7년 동남권 수출, 완만한 개선흐름 기대

2017년 국내 수출은 전세계 수입수요 확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등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IMF, IEA 등 전망기관에서는 글로벌 수입수요가 금년 2.3%에서 2017년 4.0%로 확대되고 국제유가(브렌트유)는 43.4달러에서 55달러⁶⁾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17년 국내 수출이 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남권 수출도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수입수요가 금년 2.2%에서 7.2%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최근 동남권과 경제 연관관계가 크게 높아진 브라질·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도 수출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해양플랜트 발주 확대 등으로 조선관련부문 수출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 및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내 자급률 상승 등은 동남권 수출개선 폭을 다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⁷⁾.

세계 주요국 수입증가율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계	3.4	4.0	2.4	2.3	4.0	4.3
선진국	2.3	3.7	4.2	2.4	3.9	4.2
(미국)	1.1	4.4	4.6	2.2	7.2	5.7
(유로)	1.5	4.5	5.9	3.4	4.0	4.4
신흥국	5.3	4.5	-0.6	2.3	4.1	4.5
(중국)	10.6	8.7	0.6	3.9	2.7	2.9
(브라질)	8.4	-0.1	-13.5	-8.7	2.1	2.1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IMF(2016.10월)

6) 유가는 2016년 12월 전망 기준

7) 중국의 수입수요는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금년 3.9%에서 2017년 2.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IMF)되고 석유화학제품의 중국내 자급률은(2010년 64.9% → 2014년 79.1%, 석유화학협회)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첨단제조업 및 소비재 수출비중 확대 노력이 중요

최근 5년간 동남권 수출의 주력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다. 이들 4개 품목은 수출순위가 상위 5위권내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동남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상회하고 있다⁸⁾.

동남권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은 중후장대형 산업의 완성품 또는 부분품이라는 점에서 최근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수요부진으로 중후장대형 산업의 과잉공급 수준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동남권 수출이 부진한 데 반해 전국은 최근 5년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첨단제조업 및 소비재가 증가세를 시현⁹⁾하면서 수출 감소의 진폭을 상당부분 축소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고 균형 잡힌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동남권의 경우 G2(미국, 중국) 국가로의 수출비중이 2011년 23.2%에서 2016년 26.6%로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8대 신흥국¹⁰⁾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석유화학제품, 기계·기계부품, 전기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남권의 주력 수출품목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수출비중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등 G2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대상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8) 4개 품목이 동남권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9.4%, 2012년 56.4%, 2013년 57.8%, 2014년 58.9%, 2015년 57.8%, 2016년 52.0%이다.

9) 2012~16년중 반도체는 연평균 4.3%, 무선통신기기는 1.8%, 플라스틱 제품은 5.2%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10) 8대 신흥국 분석(2014년 수입)은 자료가용이 가능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남권 지역별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변화

▣ 부산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수출 국가	2011년	중국 (19.0)	일본 (10.4)	미국 (7.7)	베트남 (3.8)	러시아 (3.1)
	2016년	미국 (25.7)	중국 (12.9)	일본 (8.8)	베트남 (6.3)	멕시코 (3.6)
수출 품목	2011년	자동차 (14.7)	선박해양구조물 (9.0)	자동차부품 (6.2)	철강판 (6.1)	주단조품 (5.9)
	2016년	자동차 (15.1)	자동차부품 (10.2)	철강판 (5.9)	철강판및철강선 (4.6)	원동기및펌프 (4.3)

▣ 울산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수출 국가	2011년	중국 (18.0)	일본 (8.8)	미국 (8.0)	인도네시아 (6.4)	싱가포르 (6.2)
	2016년	미국 (13.8)	중국 (12.4)	싱가포르 (5.5)	일본 (4.5)	호주 (3.6)
수출 품목	2011년	석유제품 (30.5)	자동차 (15.8)	선박해양구조물 (14.3)	합성수지 (4.6)	금은및백금 (4.2)
	2016년	자동차 (20.8)	석유제품 (19.4)	선박해양구조물 (16.1)	합성수지 (4.2)	자동차부품 (3.9)

▣ 경남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수출 국가	2011년	중국 (10.3)	미국 (7.9)	싱가포르 (4.8)	프랑스 (4.0)	브라질 (3.8)
	2016년	미국 (12.7)	중국 (10.8)	노르웨이 (6.3)	일본 (4.7)	홍콩 (4.2)
수출 품목	2011년	선박해양구조물 (54.5)	건설광산기계 (4.1)	무선통신기기 (3.6)	자동차부품 (3.0)	원동기및펌프 (2.7)
	2016년	선박해양구조물 (39.2)	자동차부품 (6.0)	원동기및펌프 (4.4)	공기조절기및 냉난방기 (3.6)	기계요소 (3.1)

주 : MTI 3단위 기준, ()내는 총수출액 대비 국가 및 품목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_____,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2016.11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현대경제연구원, “고부가 제조업의 추이와 수출 경쟁력 국제 비교,” 2016.6
 Bloomberg, “Global Trade is slowing,” 2016.11
 China.org.cn, “China issues five-year plan to revive northeast,” 2016.12
 EIA, www.eia.gov
 Fortune, “How Trump Can make trade with Mexico and China work for America,” 2016.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UN, “2015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2016.12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6,” 2016.5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상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의 희망을 품은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BNK금융그룹에 보내주신
고객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에게 더 큰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BNK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해동용궁사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6-12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성세환
편집인 구교성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6년 12월 27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